

웃둥 보살 빛둥 거사 <19>

구성 : 김흥민



자식을 죽인 바라문

[백유경(百喻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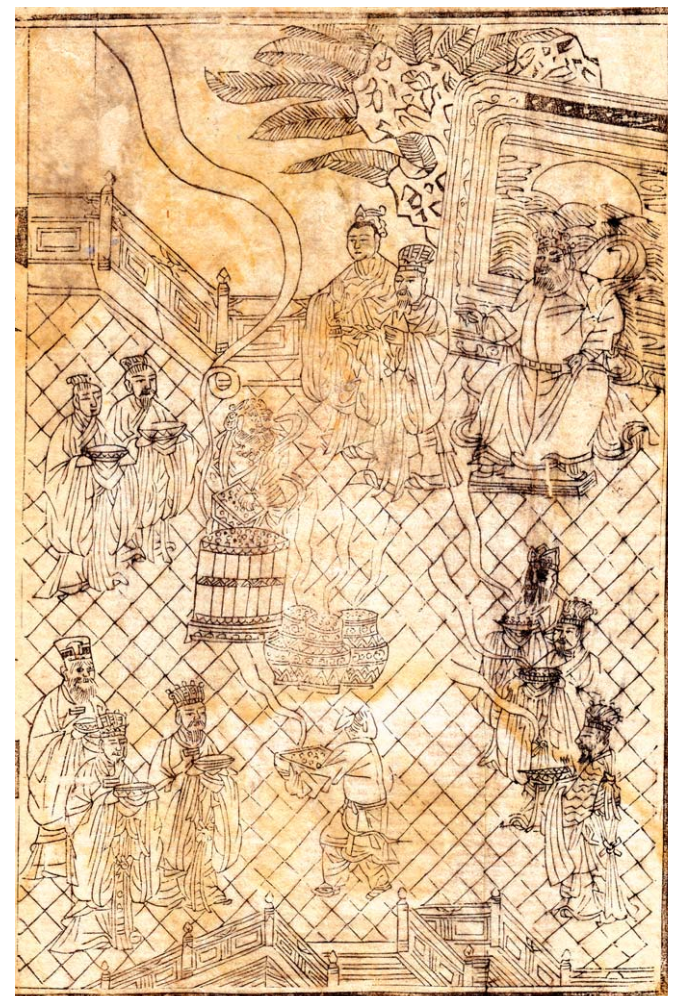
옛날 어떤 바라문이 스스로 많은 것을 안다고 했다. 자기의 재주를 믿고 그 덕을 나타내려고, 다른 나라에 가서 자식을 안고 울고 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왜 우는가." 그는 말했다. "이제 이 아이는 7일 후 죽을 것이다. 일찍 죽는 것이 가여워 우는 것이다." 그는 자기의 예언을 입증하기 위해 7일째 되자 스스로 자식을 죽여, 자기 한 말을 입증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말이 맞았다"고 탄복하면서 마음으로 믿고 우러러 모두 와서 공경했다. 어리석은 이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도를 얻었다고 자칭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의 법으로 선남자를 죽이고 거짓으로 자비의 덕을 나타낸다. 그것 때문에 장래에 한량없는 고통을 받게 되니 마치 저 바라문이 자기 말을 입증하려고, 자기 자식을 죽여 세상을 현혹시키는 것과 같다.



옛 판화의 세계

사리를 공평히 나누다 균분사리(均分舍利)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천신, 용왕과 여덟 나라 왕들이 사리를 나누는 장면을 표현했다. <저태경>에 언급된 본문의 내용은 "8대왕들이 각기 병사를 거느리고는 사리를 얻기 위해 말다툼을 벌였다. '부처님 사리는 내가 마땅히 홀로 얻어야 한다.' 이때 대신인 우바길이가 이들에게 충고했다. '여러 왕들은 말다툼하지 마시오. 사리는 마땅히 나눠 갖고 모두가 공양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때 제석천왕도 말했다. '우리가 모든 천신들 역시 마땅히 한몫이 있어야 합니다.' 용왕들도 말했다. '우리들도 한몫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우바길이가 말했다. '여러분 잠시 멈추시오! 사리는 마땅히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리를 3등분으로 나누어 한 몫은 천신들에게, 다른 한 몫은 여덟 나라 임금들에게, 나머지 한 몫은 여덟 나라 임금들에게 나눠주었다. 이들은 각기 금단지로 한 섬 남짓한 사리를 받았다. 천신들은 사리를 얻어 하늘위로 돌아가 탑을 세웠고 용왕들도 사리를 얻어 용궁으로 돌아가 탑을 세웠다. 여덟 나라 임금들도 사리를 얻어 각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탑을 세웠다."



고판화박물관 소장 <석씨원류(石氏源流)> 중 균분사리(均分舍利)란 판화(半幅) 27.2×18.0cm

첫 번째 발견은 1898년 1월 영국인 윌리엄 펠페가 인도·네팔 국경 인근 벵골라와에서 발굴한 사리용기다. 용기에는 아쇼카왕 시대 문자인 브라호미문자로 '이것은 사카족 부다인 세존의 유골용기로서 명예로운 형제·자매·처자들이 모셨다'고 적혀 사카족이 분배 받았던 사리용기로 판명됐다. 두 번째 발견은 웨일리의 아버지 세카 푸스카루니 역못 근처에 있는 탑의 터다. 1957년 알테카르 박사가 발견한 사리용기는 새겨진 글은 없으나 출토상황과 탑의 구조로 미루어 붓다의 사리를 담았던 용기로 인정받고 있다. 선학스님(명주사교편화박물관장)

허허당의 세상만사



■ 증거
아무도 오지 않는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파리가 얼굴을 기어다닌다
다리가 여섯 개다
살았다는 증거...

현대불교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세상을 떠나 세상의 소리를 풀어내다

소리

스님이 세상에 『소리』를 내 보임은 쪽빛 하늘 같이 푸른 바다를 벗 삼아 텅 빈 가슴으로 욕심 없이 보낸 세월의 흔적을 홀로 간직하기엔 너무나 큰 아쉬움이 절절히 사무치겠다 싶어서겠지요.

"한동안忍苦의 세월을 보낸 후에 世上 밖으로 나와 허물을 벗고 시원스럽게 울어대는 매미처럼 道伴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구려!"
- 수불 스님의 추천사 중에서

저자 일선 스님
신국판 양장본
12,000원

일선 스님
일찌기 의문을 품고 조계산 송광사에서 법흥 화상을 은사로 득도 중암승가대학 졸업, 봉암사를 비롯 제방선원에서 정진 송광사에서 10여 년간 수련회를 이끌었으며 거금도에서 안거 정진 중 금천선원 선원장

에세이 식으로 잔잔하게 풀려간 글들은 모두 한 곳으로 가 닿는다. 수행이다. 파도소리도 갈매기 울음도 이름모를 허브, 등대도 눈길 닿고 발길 가는 것 모두가 수행과 연관되어 있다.
- 불교신문
서울의 유명 꽃집에 전시된 매끈한 장미가 아니라 산길에서 마주한 청초한 야생화라고나 할까요. 심지어 선의 지혜로 풀어 쓴 한편의 아름다운 서정시라고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스님의 글을 읽다보면 간혹 거금도의 모래밭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도 아마 이 때문일 겁니다.
- 법보신문
망망한 바다에서 나침반이 있다는 안도감은 방향의 희망을 암시하듯 에세이 <소리>는 인생의 겸허한 나침반이 되고자 한다. 파도소리를 도우(道友) 삼아 세월의 바람에 밀릴한 하심을 떠난다.
- 현대불교신문

이 책에서 '마음이 부처라고 분명하게 믿고 깨달으면 사람마다 부처이므로 생각이나 수행방편, 하는 일이 다르다고 다를 일이 없을 것'이라며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바다를 배우라'고 강조한다.
- 한국경제신문

송광사에서 10여 년 동안 수행의 한 방편으로 수련회를 이끌었고 거금도 섬으로 들어간 뒤 풍문으로 혹은 신문기사로 접하던 스님의 그간 이야기

클리어마인드 CLEARMIND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두산위브파빌리온 736호 전화 (02) 2198-5151 전승(02) 2198-5153